

성경 신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

성경말씀: 딤후3:10-13

지난 주, 그리스도인, <성경 신자들(Bibles believer)의 믿는 바와 실행>

침례성도(Baptists)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3.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무(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벰전2:5-9)
4. 교회의 두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7. 지역 교회의 두 직무(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펴3:1-13)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바울의 또 다른 유언(10-13)

10절: 나의 교리: 은혜의 복음, 삶의 방식(히11:13-14): 나그네와 순례자, 삶의 목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의를 입은 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빌3:), 오래 참음(주로 사람), 사랑(고린도 교회), 인내(악한 상황)

11절: 고난과 핍박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다. 이고니움 및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행14:19-20). 고후11:23-27, 39대 때 5회, 몽둥이 3회, 돌 1회

12절: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로마의 교황이나 개신교의 감독들 고위 목사들이 알지 못하는 일

13절: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00년 만에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우리나라에까지 왔다.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였다(행12:2).

열두 제자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였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였다.

하나님의 신약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마귀는 세상 권력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마16:18,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였고 못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단 하나의 이유: 신약 성경대로 믿겠다는 양심의 자유, <성경 신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 교회사>

악한 자들과 관습의 등장

1. 말씀의 변개(고후2:17),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이 변개되면 교리리가 바뀌며 다른 종교로 전략 개역 성경 신약에만 13구절이 '없음' 처리 되어 있다.

성경은 말씀 변개에 대한 저주와 경고로 끝이 난다(계22:18-19)

2. 니콜라당의 출현(계2:6), 그리스말로 보면 '니코'는 정복한다. '레이'는 일반 백성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 육체적인 제사장이 없다는 것

3.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회원권이 약화되기 시작함.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만 나오면, 부모가 지방의 유지면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4.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줄지 않자 드디어 마귀는 핍박에서 타협으로 정책을 바꿈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제국의 모든 사람이 교회만 나오면 교인이 됨.

이때부터 구약시대의 신정 정치가 시작됨. 즉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기 시작함.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공회라는 회의를 주관함. 콘스탄틴은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음
 콘스탄틴은 심각한 살인자: 회심 이후에 자기 아들과 부인, 매형과 그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 성경에 따라
 양심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이로써 기독교는 교회교로 바뀌어 버렸고 드디어 명목상의 카톨릭 교회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권력을 쥔 황제와 교회는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국가 교회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어거스틴은 마귀가 심어 놓은 가라지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구약의 신정정치 체제로 여기고 이
 땅에 교회가 다스리는 왕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는 심지어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무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제압하였다.

“교회의 권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지지해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시되어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맡겨져 있고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1. 마리아 숭배: 431년의 에베소 공회 전에 그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름,
2. 유아 세례 구원,
3. 연옥,
4. 천주교 사제들의 사도적 계승,
5. 사람의 자유 의지 박멸,
6. 유대인 멸시,
7. 무천년설

국가 교회인 천주교의 악한 관습(8가지 믿음 실행 불가능)

1. 어거스틴 이후로 서유럽은 국가 교회가 되고 많. 공식적으로 천주교가 시작됨: 국가와 종교의 유착, 양심의 자유 박탈, 자치적 지역 교회 불가능
2. 유아 세례: 행8:37, 성경 변개, 교회 회원권
3. 주의 만찬을 미사로 바꾸면서 화체설을 주장하여 모두가 사제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함: 성도의 제사장 직무 박탈, 두 규례 무시, 두 직무 무시

성경 신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

1. 주후 2세기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들(Montanists)이 사도 교회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믿는 성도만이 교회의 회원이 됨을 주장했으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유아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선언하고 재침례(Ana-baptism)를 행했다.
2.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 제국에서 노바티안들(Novatians)이 일어났다. 이들 역시 유아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Cathari)이 되었다.
3.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Donatists)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4. 또한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Paulicians)이 초대 자유 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다.
5. 그 뒤 자유 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Waldensians)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천주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6.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Bogomil)이라는 이름의 자유 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7.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은 알비겐시스들(Albigenses)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8. 이들은 한결 같이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9. 로마 교회는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특히 천주교 도미니크 수도회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이단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카타리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 수가 적어도 6천만, 많게는 1억 이상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림

1.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개혁을 이룰 것을 주장했으며 똑같이 국가 교회를 시행하였다. 국가교회가 무력을 시민들을 통제하고 죽이는 일일 함.

칼빈의 제네바 통치: 오직 칼빈이 주장하고 설명하는 대로 살아야 함, 칼빈은 10,000여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자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루터도 많은 성경 신자들을 박해하였음

그 결과 16-17세기에는 온 유럽이 국가 교회

서유럽: 천주교, 독일 등 루터 교회, 영국 성공회, 스코틀랜드 장로교, 동유럽 정교회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감. 이들은 칼빈주의자들(제네바 성경), 칼빈주의자들의 국가 교회를 만들려고 함.

그러나 자유의 영을 가진 미국 시민들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는 침례교를 택함, 침례교가 가장 왕성한 국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두 바꿈,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드디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못 박음(만인의 평등, 행복추구권, 자유 및 생명권 등)

그리고 1777년 인류 최초의 양심 헌법이 만들어짐

결 론

피를 흘린 순교자들은 교리와 실행 면에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또 우리처럼 침례성도라 불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며 신약성경이 가르쳐 주는 8가지 핵심 믿음을 삶에서 실현하였다.

1. 성경의 최종권위(Bible's Final Authority; 딤후3:16-17)
2. 자치적 지역교회(Autonomy of Local Churches; 마18:15-17)
3. 모든 성도의 제사장 직무(Priesthood of All Believers; 벰전2:5-9)
4. 교회의 두 규례(Two Ordinances; 마28:19, 고전11:23-32)
5. 양심의 자유(Individual Soul Liberty; 롬14:5-12)
6.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행2:41-47)
7. 지역 교회의 두 직무(Two Offices in Local Churches, 딤후3:1-13)
8.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마22:15-22)

침례교회의 자랑

감리교 웨슬레, 장로교 칼빈과 나스, 천주교: 베드로 교황과 어거스틴, 루터교: 루터 등

우리 침례 교회에만 유일하게 인간 창시자가 없다. 예수님이 창시하셨기 때문이다.

스펠전의 말: “우리는 침례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내 교회’가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핍박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내 교회, 선한 것을 물려주는 예수님의 내 교회로 남아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딤후3:11)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신약 교회를 하려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확신한다.